

# 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한시적 지원

### 도내 137개원, 3~4월 학부모 부담금 반환·소속 교원 인건비 전액 지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한시적 지원에 나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휴업 기간 중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3~4월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해 주기로 했다. 또한 소속 교원의 인건비 전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립

유치원 137개원이며, 기간은 3월 1일~4월 24일까지 8주간이다. 그 근거로는 2020년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및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2020년 유치원 운영 한시적 지원 사업 기본계획' 알람에 따른 것이다. 사립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사업 추진계획(안)을 살펴보면 개학 연기에

따른 학부모 부담경감 지원, 유치원 교원의 고용 및 생계 안정 지원, 학교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안정적 운영 지원 등이다. 사립유치원 지원사업의 내용으로는 3~4월 학부모 부담금을 돌려주는 것으로서, 수업료 결손분 중 50%는 유치원이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정부와

도교육청이 분담 지원한다. 기간은 2020년 4월~12월까지며, 총 사업비는 19억여원이다. 1차 추경편성으로 자체비 12억여원, 국고보조금으로 6억여원 등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소규모 영세 유치원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도 밝혔다. 학부모 부담금이 월 5만원 미만인 유치원 13개원과, 학부모 부담금이 월 10만원 미만이고 유아 수가 50명 이하인 유치원 7개원이다. /장은성 기자

# 시민감사관 실지감사 착수

### 전북교육청, 16~29일... 초·중·고등학교 운영 등 6개 안전 점검

전북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이 상반기 실지감사에 착수한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시민감사관 실지감사'가 오는 16~29일까지 10일간 도교육청 6층 회의실에서 실시된다. 이번 실지감사는 감사 1반과 감사 2반으로 나눠 총 6개 안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1반에서는 △전북교육 홍보간행물 발간 유효성에 대한 사항 △초·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초·중·고등학교 영어교과 해외심화(어학)연수 후 전담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다. 또 감사 2반에서는 △특성화고 학생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수학·과학 교육의 새로운 교육콘텐츠 SW 개발 현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복지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감사 종료 후에는 교육감에게 시민감사관협의회 명의로 감사결과 의견서를 제출하고, 교육감은 그 의견서를 충분히 검토·처리 후 결과를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행정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추구하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통한 자체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면서 "해당부서에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와 조사, 평가를 위해 변호사·세무사·건축사 등 외부전문가들을 위촉해 공정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군산대학교 보령효나눔복지센터는 보령시 미산면, 성주면, 주산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거개선이 시급한 대상군을 사례회의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3개월 동안 총 22명에게 주거개선지원을 실시하였다.

# 군산대 보령효나눔복지센터 주거개선 사업 지원

군산대학교가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보령효나눔복지센터(관장 엄기욱, 군산대학교 교수)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마을단위 통합 돌봄을 위한 협동화 사업의 주거개선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센터는 보령시 미산면, 성주면, 주산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거개선이 시급한 대상군을 사례회의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3개월 동안 총 22명에게 주거개선 지원을 실시하였다. 주거개선지원은 마을단위 통합 돌봄을 위한 협동화 사업의 여러 서비스 중 하나이며 어르신들의 주택을 개보수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낙상을 예방하고 이동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전 발판 설치, 양변기거치대 설치 및 계단 발판 설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보령효나눔복지센터는 마을단위 통합 돌봄을 위한 협동화 사업안에 주거개선지원사업 외에 요양돌봄지원사업(자원봉사자파견, 영양식지원, 이동지원), 정서지원사업(어르신1박2일나들이), 인지지원사업(인지프로그램)이 있다. 센터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마을 안에서 안전하게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 '첫 투표' 만 18세 유권자 "후보공약 꼼꼼히 살폈다"

### 도내 2만8512명 표심 관심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가 15일 오전 6시 전북지역 10개 선거구 6157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특히 21대 총선에서는 선거연령 하향으로 만 18세도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이들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투표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선거권자가 등장한 가운데 도내 전체 유권자 154만 2579명 중 만 18세 유권자는 모두 2만8512명(고등학교 3학년 예상 유권자수는 8852명)이다.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렘 속에 학생들은 첫 투표임에도 꼼꼼하게 후보들의 공약이나 정치성향 등을 비교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고창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인영(18)양은 "소중하게 얻은 투표권인 만큼, 제 한 표의 가치가 크다는 걸 알고 선거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했다"면서 "어렵고 부담감은 있지만, 그만큼 책임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투표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새내기 유권자를 위

한 교육 영상을 보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봤다"면서 "앞으로도 나의 한 표가 국가, 국민, 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며 나 하나쯤이야 라는 인습한 생각을 가지고 투표를 하지 않거나 신중히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새내기 대학생인 이항기(18)씨는 "첫 투표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토론 방송시청과 공약을 자세히 읽다 보니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정치 권력의 이익을 위한 정책만이 아닌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치인에 한 표를 줬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투표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던 것과 관련해 만 18세인 김도군은 "정치에 관심의 차이이지 나이와는 별개"라며 "청소년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편견인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더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투표가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뉴스

# 전주교대, 교과과장 간담회

전주교육대학교(김우영 총장)는 14일 교과과장회의를 열어 학생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관련 장기간 계속되는 원격강의에 많은 학생들의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촉구 및 개선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우영 총장, 장용우 교무처장, 김성식 학생처장을 비롯해 학과장 대부분이 참석했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과제 제시 보고서 제출 방식의 수업을 지양하고, 동영상 강의 또는 온라인 실시간 강의를 2/3로 확대할 것 △온라인 강의의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해 실시간 강의를 포함해 진행할 것 등이다. /장은성 기자

# 완주교육지원청 Wee센터 '마음의 구급상자' 전달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숙자) 위(Wee)센터는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학생 및 학부모 100여명을 대상으로 '마음의 구급상자'를 전달할 예정이다 밝혔다. '마음의 구급상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자칫 우울과 불안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아이들의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마음의 구급상자'에는 가족대화카드,

보드게임, 클레이, 간식세트, 위생용품, 24시간 모바일상담 및 위(Wee)센터 이용 안내, 위(Wee)센터 전문상담(교)사들의 정성어린 손편지 등 마음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들로 구성했다. '마음의 구급상자'는 관내 위(Wee)센터를 이용하는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70여명에게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된다. /장은성 기자·완주=이종복 기자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